

종합

# ‘합바집 비리’ 정관계 전방위 접촉 포착

## 브로커 유씨 마당발 인맥 활용 ‘운영권 장사’

### 경찰선 전현직 고위간부 연루설에 당혹감도

검찰이 수사하는 ‘합바집 비리’ 사건이 2005~200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전방위 로비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상림 사건은 군과 검찰, 법원, 경찰에 구축한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브로커 활동을 한 유씨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공갈, 알선수재,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 백화점식으로 범범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유씨는 재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39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합바집 운영업자 겸 알선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씨와 비슷한 행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씨는 건설현장의 합바집 운영권을 파낸

뒤 자신이 거느린 2차 브로커들에게 이를 팔고, 이들 2차 브로커는 실제 합바집 업자들에게 운영권을 다시 팔았다.

유씨는 경찰,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직 장관, 공기업 임원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인맥을 쌓았으며, 이를 이용해 합바집 운영권을 따거나 알선·인사 청탁을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당발 유씨 누구에게 팔 뻔했나 = 검찰이 유씨를 수사 대상으로 주목한 것은 지난 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격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서 시작했다. 수사는 운영권만 확보하면 장기간 독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바집을 두고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건설업계의 병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는 듯 했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중 전직 장관의 경우 유씨가 해당 인사의 동생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사 의도에 경찰선 의혹의 눈초리** = 현재까지 드러난 유씨의 전방위 로비 행각은 경수 수사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육상과 해상, 차안을 책임졌던 전직 경찰수장 2명이 은근히 유씨의 중심에 놓이면서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찰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 “롯데마트 ‘통큰갈비’ 판매 중단하라”

### 축산업계·지역사회 불매운동 등 반발 확산

## 목포 노벨평화상 기념관 오는 3월 첫삽

목포시는 한국의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관인 민주시민회와 남북통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공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고자 삼학도에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짓기로 했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가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생전 두 차례나 방문해 장소가 참 좋다고 말했다고, 유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등 주위 경관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적지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190억원을 들여 목포 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삼학도 일대 1만5600㎡ 부지에 전체면적 5000㎡,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관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목포문화재단 등은 지난 5일 목포시의회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시민토론회’에서 “목포시가 김 전 대통령의 활동·거주 지역 등 자세한 연구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삼학도를 기념관 건립부지로 결정했다”며 사업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가 미국산 소갈비를 대량으로 수입해 저가 판매(광주일보 7일자 2면에 나신 데 대한 축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번에는 치킨으로 영세상인의 죽이더니 이번에는 축산농가 죽이기냐”며 “전국 한우농가, 농민단체와 연계해 롯데마트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추달업 사무국장 장은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타지역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시민회도 7일 성명을 통해 “롯데마트가 미국산 냉동 LA갈비를 싸게 판매하는 것은 구제역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찌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마케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롯데마트의 이른바 ‘통큰 갈비’ 판매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경쟁과 무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애꿎은 중소상인과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같은 비판에도 LA식 갈비를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측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LA식 갈비를 들여오기로 준비한 것이 공교롭게

## 시 설

### 혈세 먹는 2수환도로 근본수술 시급하다

광주시가 매년 20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2수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수익보장률’을 인하여 강경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업자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 측에 2년 여 동안 수익보장을 인하여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수환도로 1구간의 경우 최소수익보장률을 현재의 85%에서 75%로, 3-1구간은 현재의 90%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기본 입장이다. 민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면 사업자를 취소하고 민자도료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대응이자 조차라 여겨진다. 2수환도로에 적자 보전금 명목으로 지난 2009년에만 2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거액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수환도로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불공정계약과 이를 여과없이 수용한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 광주시는 사업자와 재협약이 가능한 만큼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적자 보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난 1997년과 2000년 양측이 1구간 및 3-1구간에 대해 협약할 당시 은행 금리가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 보전금을 현재의 금리 수준인 3~4%대로 낮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가 지난 2005년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맥쿼리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익보장률을 기존 90%에서 79.8%로 10.2%를 인하여 재정보전금을 매년 15억 원씩 절감하고 있는 사례도 재협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고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거액수적으로

### 축산농 초토화되는데 LA ‘통큰갈비’라니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롯데마트가 수입산 소갈비를 대량으로 들여와 할값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말 5000원짜리 ‘통큰 치킨’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 논란을 유발했던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구제역으로 대형 화재(火魔)에 휩싸인 한우 농가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자 주요 일간지에 오는 12일까지 미국산 냉동 LA식 갈비(100g)를 1250원에 판매하고 KB카드 구매하면 20%를 추가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이 광고에서 미국 내 HACCP(위해요소 중심 관리 기준) 인증 가공장에서 작업한 갈비 약 250t, 80만 명 분을 3개월에 걸쳐 준비했다고 내세웠다. 마치 구제역에 시달리는 국내산 소고기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같은 상술은 이웃의 불행에 짓밟고 나만 잘 되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다. 기업의 상도의라곤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생과는 거리가 먼 치졸한 상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이날부터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민 축산물 할인행사를 시작한 신세계 이마트와 홈플러스와는 대비되는 ‘악마의 상술’이 아닐 수 없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축산농가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관측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 달도 안돼 한우농가의 등에 비수를 찌는 꼴이 될 수 있다.

롯데마트는 LA ‘통큰 갈비’ 관측행사를 담당 철회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책임이지만 알뜰한 상술로 당장 눈 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 대거 발굴

신안 가거도·제주서 21종 ... 바이오 연구 활용 기대

해양생물자원이 바이오 원천소재로 부상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바다에서 신종과 미기록종 해양생물이 대거 발굴됐다.

국도해양부는 최근 3년간 제주와 신안 가거도 등 국내 바다에서 해양생물 신종 10종과 미기록종 11종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바다에서 발굴된 신종 해양생물. 왼쪽은 제주도에서 확인된 꽃별남작뱀해파리, 가운데와 오른쪽은 가거도에서 발굴된 해면동물.

가거도에서도 해면동물 2종이 신종으로 발굴됐다.

국토부는 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해양바이오 연구를 위해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신종과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3880종 8만 4276종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확보한 생물종을 해양바이오 에너지 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2013년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도 연계해 해양생물자원의 확보와 관리,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 빛의만평

- 김중두

참으로 가관이다

## 삼성전자 매출 150조 시대

작년 153조원 ... 영업이익 17조2천800억 사상최대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1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10~12월)에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기준으로 매출 41조원, 영업이익 3조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153조7600억원, 영업이익은 17조28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150조원, 영업이익이 1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은 12.8%, 영업이익은 58.1%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 실적을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370억 달러 규모로, 최지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연간 매출 2000억 달러’ 시대를 수년 안에 열겠다고 한 말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하반기 들어 가속화된 시황악화 속에서도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력해진 시장지배력과 1등 제품 확대에 따른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력제품인 반도체에서 2등과의 기술격차 확대에 이 부문에서만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쓸어들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암운이 드리워졌던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하반기 이후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 야심작들이 기대 이상의 히트를 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 지리산 반달곰 17마리 모두 ‘冬眠’

도토리 흉년에 작년보다 한달 빨라 ... ‘야~호’ 금지 당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계자는 “반달가슴곰의 주요 먹이인 도토리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60~70%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동면에 일찍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면에 들어간 반달곰은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먹이가 되는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곰이 외부 자극에 놀라 잠에서 깨 활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해 위험해지기 때문에 탐방객들에게 ‘야~호’와 같은 소리를 내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남·북한 軍 특별경계 해제

북한군이 지난해 11월21일부터 서해 각급 부대에 하달한 특별경계군부 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연합사령부도 지난 4일부로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북측은 신년 공동사실에 이어 지난 5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군이 작년 11월21일 우리 군의 호국훈련과 관련해 하달한 특별경계군부 태세 명령을 최근 해제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이 새해 초부터 우리 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군의 이런 조치와 연관이 있는지를 정부와 군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신년 공동사실에 이어 지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